



## “자원순환의 첫걸음은 환경의식 수준 향상이 우선”

#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40여만명의 구민이 거주하는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비록 서울시 전체면적의 2.35%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량리역과 천호대로, 왕산로 등 간선도로가 위치한 동부서울의 관문이며, 청량리 부도심권을 비롯하여 군자, 전농, 신설, 회기, 이문, 신이문, 배봉 등 2개 중심지구, 5개 생활권 중심의 도시개발계획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는 21세기 서울의 중심도시이다. 또한 조선시대 한성부 도성 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농경지와 교통의 요충지로, 국왕의 친경지였던 적전과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는 선농단,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기리는 세종 대왕기념관의 각종 문화재단 선조의 숨결이 그대로 배어있는 역사의 향기가 어린 고장이기도 하다.

근대에 들어와 대학교육기관을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방 연구원 등 각종 연구소가 자리잡아 동대문구는 이제 명실공히 문물의 도시로서 문화의 시대,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 나가는구로서 새로운 발돋움 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은 ‘동부 서울의 편리한 성장거점도시로 육성’, ‘사랑과 나눔의 더불어 사는 복지 동대문 건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친화적 푸른도시 건설’, ‘삶의질 향상에 따른 수준 높은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도약’, ‘보행자 위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방향으로 하여 동부 서울의 교육,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로서 편리한 도시, 따뜻한 도시, 건강한 도시 그리고 깨끗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하고 있다.

특히,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다양한 환경 정책 중, 자원재활용 문화를 정착하고 구의 재활용용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많은 노력과 역량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대문구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는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은 주로 민간수집상에 의해 이루어지지만(약 7만여톤), 수거가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직영하여 총 4,700여톤(2005년도 기준)의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수거, 선별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활용선별장내 폐형광등 집하장 유치 등 그 기능을 다변화 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3곳의 재활용센터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약 1,700톤의 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을 1년간 수거, 재활용하여 왔으며, 나눔장터 확대 운영,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구민의 재활용 의식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2005년도의 자원재활용 추진 성과의 철저한 분석과 미흡한점의 보완을 통해 2006년도에는 재활용업무의 내실화·유관기관 공조 공고화, 현장근로자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 통계의 정확성 유지 및 주기적 분석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 자원재활용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  |  |
|--|--|
|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br>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br>인간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br>앞서가는 고객감동 자치도시 |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br>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br>재난 재해없는 안전도시 |
|--|--|

그동안 미흡했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품목의 다변화 노력을 위하여 폐식용유, 건전지 및 폐형광등의 수거, 선별의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는 한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를 확대하고 비닐봉투 혼합배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단독주택지역에 그물망 분리배출 용기를 보급하며, 이와 병행하여 기존 2종(종이류와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및 수거에 따른 필름류포장재 등의 선별처리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부품목별 지정요일 배출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 상승이 크게 기대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인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과 함께 동대문구에서는 재활용의 시작단계인 주민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2005년부터 준비해온 특별한 사업이 있는데 바로 5호선 답십리역사내 자원순환홍보전시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홍보전시관은 그 설치 장소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 중 하나인 지하철 역사라는 점에서 지하철 이용객은 물론 주민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그 홍보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동대문구는 홍보전시관 설립 추진에 있어 우리 협회 및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200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자원순환홍보전시관 건립 및 운영이라는 공동목표와 이행에 관한 상호협력에 합의하였는데, 상호협력의 목적과 협력분야·형태·절차 등 총 7조로 구성된 이번 상호협력합의서는 동대문구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간의 정보교류, 전시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연구 및 투자, 당사자 간 공식 및 실무방문, 연수, 파견, 세미나 초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원재활용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협회 간 실질적 교류 협력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바가 크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대문구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독창적인 노력들이야말로 동부서울의 중심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동대문구 재활용 선별장